

항공우주산업 98실적 및 99전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관리이사 김 영 갑

주요 프로젝트 막바지 단계 매출액 1조

98년 국내 항공우주산업 총 매출액은 97년에 이어 1조원이 넘는 1조 3,345억원으로 97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항공분야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KFP, UH-60사업과, 실용시제개발사업인 KT-1 기본훈련기사업 등 기존사업 물량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KTX-2 고등훈련기 체계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개발 매출 발생으로 97년 대비 10% 증가한 1조 2,877억원을 나타냈다. 우주분야 또한 globalstar 사업과 무궁화 3호 위성 제작물량 납품으로 97년 대비 122%나 증감한 4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KFP, UH-60 사업의 마지막해로 동 사업 물량의 감소와 우주부문의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사업 지연 및 globalstar 사업물량의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KTX-2 고등훈련기 체계개발사업 진행으로 연구개발에 의한 매출액 증가와 금년부터 시작되는 소형정찰헬기사업 그리고 2000년경부터 양산이 예상되는 KT-1 기본훈련기사업 준비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매출액은 98년 대비 7% 증가한 1조 4,3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항공	7,778	11,680	12,877	14,086
우주	38	211	468	237
계	7,816	11,891	13,345	14,323

수출 3,779억원 매출 올려

수요별 매출 실적을 보면, 내수는 97년 9,903억원에서 3% 감소한 9,566억원을, 수출은 세계항공산업 시장의 호황과 환율인상으로 97년에 비해 90%신장한 3,779억원을 기록하여 내수 대 수출 비율이 약 70:30으로 여전히 내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2) 수요별 항공우주산업 매출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내수	6,010	9,903	9,566	10,381
수출	1,806	1,987	3,779	3,942
계	7,816	11,890	13,345	14,323
내수:수출	77:22	83:17	72:28	72:28

품목별로 살펴보면 완제기는 KFP, UH-60사업 물량 감소로 97년보다 4% 줄어든 5,138억원의 매출 실적을 보여 항공부문에서 4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KFP, UH-60사업의 마지막 사업 물량과 소형정찰헬기, KT-1 양산준비 및 KTX-2 체계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완제기 분야 전체매출액은 98년에 비하여 오히려 38%정도 증가한 7,10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체 분야는 세계항공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와 환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3,75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점유비에서는 29%를 차지하였다. 올해 수출액은 SB427 헬기 동체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KFP 및 UH-60 사업종료에 따라 내수분야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 전체 매출액은 98년 대비 약 16% 감소한 3,15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진 분야는 정비물량 및 수출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3,342억원의 매출을 올려 항공부문 26%의 점유율을 보였다. 올해는 KFP(F-100엔진), UH-60(T700엔진)의 사업 종료로 내수 매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국내외 정비물량 및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은 약 4% 정도 늘어난 3,48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항공전자는 전년대비 43%증가한 177억원, 보기분야는 25%감소한 367억원의 매출을 나타냈으나 올해는 두분야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각각 57억원, 157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재부분은 96년부터 괄목할만한 수출 신장을 기록한 두레에어메탈의 알루미늄 압출소재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0% 증가한 9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98년 대비 약 34% 증가한 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3) 부문별 항공산업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원제기	3,280 42%	5,356 46%	5,138 40%	7,104 50%
기체	2,079 27%	2,898 25%	3,756 29%	3,155 22%
엔진	1,645 21%	2,793 13%	3,342 26%	3,486 25%
전자	404 5%	124 1%	177 1%	57 1%
보기	364 4%	492 4%	367 3%	154 1%
소재	6 1%	17 1%	97 1%	130 1%
계	7,778	11,680	12,877	14,086

우주부문에서는 globalstar 및 무궁화위성 3호 제작 물량의 납품이 계속되어 매출액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468억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는 무궁화위성 3호 물량 종료와 globalstar 물량 감소로 98년 대비 약 49%감소한 237억원이 될 것이다.

(표4) 부문별 우주산업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위성체	32	210	461	234
발사체	5	1	0	0
지상체	1	0	7	3
계	38	211	468	237

연구개발 투자 177% 증가

지난해 항공우주 전체 투자액은 IMF 체제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효율화 정책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97년 대비 28% 감소한 3,194억원이었다. 이중 항공부문은 3,088억원으로 전년 대비 7%감소하였으며 우주부문은 106억원으로 91% 감소하여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금년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반면 2호기 사업 지연과 관련 기업들의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토지/건물 분야는 97년 대비 75% 감소한 661억원이 투자되어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97년은 현대우주항공이 서산공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지난해에는 대우중공업 사천 KT-1 기본훈련기 양산 공장 건립외에는 특별한 투자요인 없이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설비분야는 97년 대비 45% 감소한 420억원, 기타분야는 69%감소한 79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연구개발 분야 투자액은 KTX-2 사업 영향으로 97년 대비 약 171% 증가한 2,028억원에 달

했다.

올해도 후속 프로젝트 부재, 단일법인 설립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등의 영향으로 토지/건물, 설비 부문 투자는 98년에 이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연구개발 분야는 KTX-2 사업 영향으로 98년 대비 70% 증가한 3,4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체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4,26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항공우주산업 투자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항공	4,382	3,316	3,088	4,194
우주	528	1,129	106	67
계	4,910	4,445	3,194	4,261

(표6) 분야별 투자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토지/건물	1,441	2,680	667	355
설비	1,447	766	420	329
연구개발	1,981	747	2,028	3,450
기타	41	252	79	127
계	4,910	4,445	3,194	4,261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 감소

항공우주산업 전체 인력규모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11,34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중 항공 부문은 10,9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우주부문은 443명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우주부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현대전자의 위성사업 중단 및 코스페이스 등으로 분사(分社)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현재까지 업계의 잠정적인 계획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인력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KFP, UH-60 사업 종료와 단일법인 설립후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인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는 계획된 인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7) 인력 현황

구분	96년	97년	98년(e)	99년(e)
항공	11,366	12,854	10,900	10,907
우주	592	602	443	442
계	11,958	13,456	11,343	11,349

사업물량 확보에 모든 역량 집중

지난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KFP, UH-60, KT-1, KTX-2사업의 일시적 중첩 효과로 매출액이 9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올해도 KTX-2, KT-1, 소형정찰헬기사업 등의 영향으로 외견 수치상으로는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항공산업의 70~80%를 차지하는 KFP, UH-60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로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규모의 사업은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려해왔던 시설 및 인원 유희화 등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 경제 불황에 따른 여객기 수요 감소로 부품 수출 물량 확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산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우주단일법인 출범후 국내사업 물량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물량 수주 확보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당분간의 생산 공백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